

제주방어축제의 재방문 요인 연구

김희철* · 김민철** · 부창산***

A Study on Factors of Re-Visit in Bangeo Festival of Jeju region

Kim, Heecheol* · Kim, Mincheol** · Boo, Changsan***

요약 :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활성화된 방어축제의 지속적인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종속변수를 재방문의도로 한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축제 프로그램' 요인이 가장 중요하며, 이 요인이 1단위 증가하면, '재방문하겠다'는 확률이 '재방문하지 않겠다'는 확률보다 5.255배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유의한 변수인 '축제장 편의성' 및 '축제사전인지' 변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축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방어축제, 다항로짓모형, 재방문, 요인 탐색

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earch the factors inducing the visitors to revisit in Bangeo Festival of Jeju region. To get this objective,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with the Multinomial Logit Model applied dependent variable to intention of revisit.

As a result, 'festival program' factor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if the factor increases by 1 unit, the probability of 'revisit' can be increased by 5.255 times than the probability of 'no revisit'. Secondly, the next significant factors are 'festival convenience' and 'festival recognition in advance'. So the providers of the festival will intend to prepare the festival focused on the important factor proposed by this results.

Key Words : Bangeo Festival, Multinomial Logit Model, Revisit, Searching the factors.

1. 서론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효과 및 외화획득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가장 경쟁력 있는 유망사업 중의 일환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지 개발 및 마케팅 사업을 하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최근 들어 지역축제, 이벤트, 국제회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한편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주 5일 근무제가 실시한 이후 관광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지역축제를 관광 상품화 하여 해당지역의 개발 수단으로 전략화 하고 있는바 외부의 방문객들을 유치하여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화 및 새로운 문화 창출을 유도하고자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매년 대표 축제를 지원·육성하고 있다 (조배행·박종진, 2007).

지역 특유의 자원을 매력으로 한 지역축제는 사회경제적·물리적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특히, 지역고유의 문화축제를 통해서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지역문화의 발굴, 지역이미지 창출, 관광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은 축제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된다.

하지만 지방자치 실시이후 개최된 지역축제는 이전과 비교하여 양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수많은 축제들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주제설정의 미흡, 축제의 비 차별화, 지나친 상업성으로 인한 지역의 정체성 상실, 관의 주도로

*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heju National University)(khc3155@cheju.ac.kr)

** 제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Cheju National University)(mck1292@cheju.ac.kr)

***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bcs0202@hanmail.net)

인한 주민참여 부족 등은 대표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김익권, 2007).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인 제주에서도 축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50여건의 축제가 개최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축제 개발과 운영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서휘석·이동기·김영희(2002)는 지역축제의 성공기준은 방문객들이 원하는 소재의 발굴 및 독창성을 지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서비스 질의 제고를 통해 방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역축제 방문객에 대한 만족 수준 및 재방문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제 방문객에 대하여 재방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 정책을 보다 명확히 수립해야 하며, 이를 축제 기획단계에 반영하여 방문객의 방문을 계속적으로 창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활성화된 방어축제에 대해 지속적인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요인을 탐색적으로 찾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속변수를 재방문의도로 한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항로짓모형의 사용 이유는 재방문하고자 하는 축제의 방문객들 중 '축제를 다시 방문할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집단에 대해 초점을 둘 수 있다. 즉 방문의향 집단과 방문하지 않을 집단 간 사이에 있으면서 '재방문을 확신을 못하는 집단'에 대해 어떤 요인에 의해 방문을 유도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¹⁾이다. 따라서 본 분석을 통하여 방어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축제 방문에 관한 연구

지역축제가 개최지역간의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지역주민 및 기획자들은 방문객들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 방문객들에 대한 재방문을 유도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지역축제 개최지역이 방문객에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재방문되

기를 바란다면 방문했던 지역축제에 대해 어떤 요인에 의해 방문객들을 재방문을 유도하였는지에 대한 연구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축제의 만족은 방문객이 지역축제에 방문하면 정서적·감정적으로 느끼는 단기적 형성과정을 거치는 것이지만, 재방문은 다양한 긍정적 태도나 느낌들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방문객들 간에 형성될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지역축제 방문객의 만족과 재방문과 관련한 최초의 연구를 살펴보면 Mohr et al(1993)의 연구들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방문객의 형태에 따라 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밝혀냈으며, 특히 재방문자가 첫 방문자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동우(1998)는 관광의 심리적 체험과 만족과의 관계에서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체험의 심리적 차원을 확인하고, 전반적 만족, 재방문 의도, 추천 의도 각각을 기준으로 차원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목적지별 후속 평가와의 관계에서 관광지별로 평가 후 행위의도에 미치는 변수간의 관계는 조사대상 목적지별로 각각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이미지로 인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기철(2000)은 한국 문화관광 상품에 대한 일본 여행자의 만족과 재방문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크게 방문 전 시점과 방문 후 시점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방문 전 관광 상품에 대한 재 구매 의도는 방문 후 재 구매 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은 그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용복·부창산(2007)은 제주 왕벚꽃축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속성과 재방문 및 추천의사간의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만족도와 재방문의사간, 추천의사간에 긍정적 영향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역시 만족은 재방문 및 추천의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arce(1988)는 관광객들은 만족/불만족 결과에 따라 재방문을 하거나 다른 관광지로 목적지를 바꾼다고 주장하였고, 만족을 한 관광객은 재방문하거나 관광지에 대하여 호의적인 설명을 하지만 불만족한 관광객들은 재방문을 하지 않으며, 타인에

게 권유하지 않고 부정적 설명으로 해당 관광지의 평판에 크게 손해를 입힌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지역축제 방문객의 만족은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만족이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 즉 만족이 재방문 행동에 반드시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으나 선행연구들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만족한 방문객이 재방문을 적극적으로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축제에 방문한 후의 만족이 항상 재방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재방문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축제의 만족도를 측정할 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권정택(2001)은 관광축제 방문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방문동기와 사후이미지 속성을 파악하고 관광축제를 찾는 방문객에게 어떻게 만족과 재방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방문동기 요인 중에서 방문자의 만족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문화적 요인, 사후 이미지 속성으로는 프로그램과 행사내용, 행사장의 쾌적성과 안내시설, 스태프, 참여의 용의성으로 밝혀졌다. 이훈·김정은(2000)은 관광문화축제를 대상으로 행사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 분석단위로 주제성, 참여성, 지역성, 유사성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참여성 기준을 축제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수동적인 감상을 위주로 한 관람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고승익·윤동구·정승훈·박은아(2000)는 행사장환경, 행사내용, 행사장시설 및 접근성, 가격

(비용), 행사진행 등 5개의 요인에 22개의 측정항목을 사용하였고, 박미정(2001)은 이벤트 매력, 시설성, 경제성, 다양성, 축제속성, 지역성 등 6개의 요인에 19개의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이장주(1997)는 축제 이미지 속성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진도 영등재를 대상으로 편의적 요소, 놀이적 요소, 심리적 요소, 지역적 요소, 제의적 요소, 참여적 요소로 구성된 30개의 측정항목을 개발하여 이용성, 유희성, 신기성, 향토성, 전통성, 체험성, 교육성이라는 7개의 속성 항목을 밝혀냈다.

이상 지역축제 방문객의 만족 및 재방문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축제의 특성이나 성격에 따라 그리고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만족도가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방문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은 ‘재방문 의향이 없는 집단’ 및 ‘재방문 의향이 모호한 집단’이 ‘재방문 의향이 있는 집단’으로 가기 위한 우선적 요인을 탐색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 등의 부재 등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축제의 만족속성 항목 등을 참조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제주 방어 축제 개요

지역축제는 관광객들에게 다른 지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지역 고유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지역 고유의 축제 프로그램에는 문화제, 민속예술 등 전통행사를 비롯하여 현대적 이

표 1. 최남단 모슬포 방어축제 행사개요 및 주요 프로그램

주 최	최남단방어축제위원회
행사장소 및 기간	모슬포항 일대, 2006. 11. 21(금) ~ 11. 26(일)
주제	청정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산자 공동체 문화축제
첫째날	개막식, 방어손으로 잡기, 노젓기 체험, 길놀이, 풍어제
둘째날	마라도 방어잡이 일일선원 체험, 바다사랑 백일장 및 사생대회, 방어 손으로 잡기, 가두리방어낚시 체험, 체험선상 방어낚시, 민속경기 장기, 무료시식회, 최남단 가요제 예선
세째날	최남단 선상 방어 낚시대회, 방어모델 선발대회, 체험 노젓기, 가족 배낚시, 방어 어시장 및 경매, 시식회, 지역문화단체 공연, 최남단 가요제 결선, 폐막식

자료: 최남단모슬포 방어축제 행사 계획안을 기초로 연구자가 재작성

벤트 요소들을 가미시키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다른 지역 축제들과 차별성을 두지 않으면, 그 지역의 정체성과 향토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주도 서남쪽 끝자락 모슬포~마라도 주변해역은 해마다 10월~2월에 방어어장이 형성된다. 대도시 어시장의 방어는 대부분 이 곳에서 나가는데다 고급 어종으로 취급돼 어업인들은 높은 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수입 수산물의 급증에 따른 판매 부진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며 소득이 줄자 주민들은 방어축제를 열어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최남단 모슬포 방어축제는 지난 2001년부터 ‘최남단 모슬포 방어축제’를 개최하여 올해 ‘청정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산자 공동체 문화축제’라는 모토로 내걸어 2006년에 6회째를 맞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방어축제의 경우 주제에 부합되고 방어라는 이미지를 잘 표현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어져 왔으며, 친혜의 자연 자원을 인간에게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는 장이 될 것이며, 최남단 모슬포의 맛의 축제로 바로서기 위해 바다와 땅의 문화가 조화롭게 만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제6회 제주역새꽃 축제의 특별행사로 진행된 방어축제 한마당 행사는 주제반영과 지역성, 타 지역과의 차별화 측면에서 좋은 본보기였다.

3. 실증분석

1) 설문지 구성 내용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방어축제의 인지 및 탐색에 관한 항목 3개 및 방어축제에 관련한 일반적 사항 4개(재방문 항목 포함)로 구성되었고 만족 변수는 18개 항목으로 되어있다. 마지막에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항목이 6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족 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기존 연구의 부재로 인해 선행연구(고동우, 1998; 배기철, 2000; 박미정, 2001; 이정실·양일용, 2003; 고승익·윤동구·정승훈·박은아, 2000; 이장주, 1997; 최용복·부창산, 2007)를 바탕으로 방어축제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만족 변수 18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리커트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2) 표본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방어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자가 응답자와의 개별면담 방식으로 설문하게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 11월 25일 지역축제에 참가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 조사지를

표 2.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31	56.5	직업	전문직	24	10.3
	여	101	43.5		생산기술직	21	9.1
	소계	232	100.0		사무행정	60	25.9
연령	20세미만	10	4.3		판매서비스	25	10.8
	20-29세	53	22.8		농림축산업	10	4.3
	30-39세	85	36.6		자영업	26	11.2
	40-49	67	28.9		주부	25	10.8
	50세이상	17	7.3		학생	35	15.1
	소계	232	100.0		기타	6	2.6
소득	150만원미만	45	19.4		거주지	소계	232
	150-250만원	60	25.9	도내		185	79.7
	251-350만원	67	28.9	도외		47	20.3
	351-450만원	33	14.2	소계		232	100.0
	451만원이상	27	11.6	학력	대제/대졸	143	61.6
	소계	232	100.0		대학원이상	25	10.8
학력	고졸이하	64	27.6	소계	232	100.0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배포된 설문지수는 총 250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39부였으나 그 중에 설문항목을 전부 응답하지 않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7부를 제외하여, 총 232부의 유효표본을 얻을 수 있었다. 이용 통계기법으로는 크게 기술적 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과 다변량 통계분석으로는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 등을 적용하였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2 참조), 남성이 56.5%, 여성이 43.5%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39세가 36.6%로 가장 많으며, 20~29세가 22.8%, 40~49세가 28.9%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27.6%, 대재/대졸이 61.6%, 대학원 이상이 10.8%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행정이 25.9%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학생이 15.1, 판매서비스 및 주부가 각각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은 251~350만원이 28.9%로 가장 많으며, 151~250만원이 25.9% 등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는 도내가 79.7%, 도외가 20.3%로 나타났다.

3) 방어 축제의 기초자료 빈도분석

다음 <표 3>은 방어 축제장을 방문한 방문객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총 232명의 응답자 중 방어축제에 참여한 방문객의 방문행태를 살펴보면, 친구동반이 110명으로 전체의 47.4%로 가장 많은 방문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족동반 68명으로 29.3%순으로 나타났다. 축제정보원천은 주위의 권유가 83명으로 전체의 35.8%, 언론매체 등의 60명으로 25.9%, 팜플렛, 브로셔 등의 홍보물이 59명으로 25.4%로 나타났으며, 축제의 사전인지 여부는 전체의 87.9%가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방어축제에 처음 방문한 방문객은 전체의 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4회 이상 참여한 관광객도 28명으로 12.7%를 차지하였다. 관

표 3. 기초자료 빈도분석 요약표

구분	항 목	빈도(명)	비율(%)	구분	항 목	빈도(명)	비율(%)
방문 형태	혼자	3	1.3	방문 횟수	처음방문	131	56.5
	가족동반	68	29.3		2회	50	21.6
	친구동반	110	47.4		3회	20	8.6
	연인동반	19	8.2		4회 이상	31	13.4
	단체관광	16	6.9		소계	232	100.0
	기타	16	6.9	체재 장소	당일방문	154	66.4
	소계	232	100.0		여관	12	5.2
정보 원천	언론매체	60	25.9		민박또는펜션	32	13.8
	인터넷	1	0.4		호텔	9	3.9
	팜플렛, 브로셔 등	59	25.4		기타	25	10.8
	주위의 권유	83	35.8	소계	232	100.0	
	기타	29	12.5	지출 비용	5만원 미만	169	72.8
소계	232	100.0	5-10만원		31	13.4	
사전 인지	전혀 몰랐다	26	11.2		10-15만원	17	7.3
	몰랐다	28	12.1		15-20만원	4	1.7
	보통	41	17.7		20만원 이상	11	4.7
	조금알았다	95	40.9	소계	232	100.0	
	많이알았다	42	18.1	체류 시간	3시간이상	53	22.8
	소계	232	100.0		소계	232	100.0
체류 시간	30분미만	6	2.6	재방문 의향	그렇지않다	39	16.8
	30-1시간	29	12.5		보통	75	32.3
	1-2시간	101	43.5		그렇다	118	50.9
	2-3시간	43	18.5		소계	232	100.0

광자의 체재장소는 당일 방문자가 154명으로 66.4%였으며, 민박 또는 펜션 등이 32명으로 13.8%로 조사되었으며, 지출비용은 5만원 미만 지출이 169명으로 72.8% 차지하였으며, 5~10만원이 31명으로 13.4%, 20만원 이상은 11명으로 4.7%였다. 체류시간은 1~2시간이 101명으로 43.5%였으며, 3시간 이상이 53명으로 22.8%로 조사되었다. 향후 재방문의향은 그렇다가 118명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이다 75명으로 32.3%, 그렇지 않다 39명으로 16.8%로 조사되었다.

4)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선 방어축제에 대한 방문객의 만족 변수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면 다음 표와 같이 요인을 추출하였다. 여기서 요인분석 결과 분석을 위하여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크론바하 알파 값이 0.6이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Hair et al, 1998) 각 요인에서 크론바하 알파 값이 가장 최대화될 수 있도록 신뢰성 분석을 거쳐 18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제외한 16개의 최종 항목을 선정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0.924, Bartlett's Test=3293.818(p<.001)로 요인분석결과가 사후분석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축제프로그램, 축제기념품, 축제안내, 축제장편의시설, 축제음식 등 5개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여기서는 크론바하 알파 값이 모두 0.8 이상으로 안정적이었다. 여기서 산출된 요인은 다항로짓모형에서 독립변수로 분석되어, 앞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등과 더불어 어떤 요인이 방어축제의 재방문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5) 다항로짓 분석을 통한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1)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 모형
본 연구에서는 방어축제가 갖고 있는 어떤 만족 요인 및 기타 변수들이 재방문 여부에 원인이 되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분석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로 설정되는 가설을 로짓 모형²⁾으로 검증한다.

이러한 로짓모형과 관련하여 지역적인 내용을 담은 기존 문헌에서는 김현철(2004) 연구에서는 단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내용	설문 항목 내용	요인 적재치	커뮤니티	아이겐값	크론바하 알파
축제 프로그램	축제내용이 재미있고 신명났다	.719	.815	3.132	.923
	축제프로그램이 독창적 이었다	.712	.839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만족했다	.711	.776		
	축제행사 내용이 다양했다	.676	.837		
축제 기념품	행사요원 복장이 적절하였다	.613	.804	3.042	.933
	축제관련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했다	.837	.908		
	축제관련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했다	.811	.853		
축제 안내	축제관련 기념품의 품질이 좋았다	.809	.886	2.777	.865
	행사장내 안내시설(표지판)이 잘 되어있다	.783	.785		
	행사장의 안내요원은 친절하고 적극적 이었다	.768	.828		
축제장 편의 시설	축제에 대한 팸플렛 등의 정보가 풍부했다	.673	.806	2.244	.847
	행사장의 주차공간은 넓고 편리했다	.813	.813		
	축제장 내 화장실이 청결하고 편리했다	.743	.847		
축제 음식	휴식공간이 잘 되어있다	.575	.760	2.101	.870
	음식의 맛이 좋았다	.808	.886		
	음식의 종류가 다양했다	.760	.854		

누적분산=83.102, KMO=.924 Bartlett's Test=3293.818**

** p<0.001

순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제주지역 내 님비(NIMBY) 현상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박인환 등(2006)에서는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경상남도창녕군 이방면 지역의 농경지 휴경잠재성을 분석하였다. 이덕재(2006)는 지리산 국립공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경관선호를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또한 축제 분야에서는 김성섭 등(2005)은 로짓모형을 이용한 지역 내 축제 참가자의 비용 지출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로짓모형으로서 여러 변수(입장료, 교통비 등)들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탐색하는데 그쳤다. 이태희 등(2007)에서는 관광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축제 매력 요인과 관광지 매력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서론에서 연구목적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축제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는 점에 차별성을 갖고 있다.

우선 단일로짓모형(Single Logit Model)은 종속 변수의 척도가 "0"과 "1"로 구성된 2진(binary) 응답형인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일반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의 한 형태이다(Gujarati, 1995). 이러한 회귀모형은 프로빗모형과 마찬가지로 종속변수(반응변수)에서 오즈값(odds ratio)을 통하여 독립변수 1단위당 반응변수의 증감 확률을 보여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서혜선 외, 2001).

앞서 서론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서 판별분석이 있는데 이는 집단종속변수인 집단의 공분산이 집단별로 동일해야 하며 독립변수가 간격척도 및 비율척도가 되어야 하는 등의 가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를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로짓 회귀분석이 유용³⁾할 수 있다. 또한 군집분석도 유사한 개념이나 이는 선행적으로 집단이 분류되지 않고 분석 뒤에 집단을 만드는 방법이므로 본 연구에는 맞지 않는다(이학식 외, 2005).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로짓 회귀분석은 하나의 독립변수의 관찰치 값(x)과 이 값을 π 함수로 전환시킨 $\pi(x)$ 간의 곡선형관계로서 나타내진다. $\pi(x)$ 는 0과 1사이에서 값을 취하게 된다.

만약 로짓모형에서 반응변수가 세 가지 이상의 범주로 되어있다면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으로 분석하게 된다.

다항로짓은 종속변수의 여러 범주 중에서 한 범주를 기준범주로 정하고, 다른 범주를 기준범주와 비교하여 그 확률을 산출하게 된다(Liao, 1994; 이선우, 2001). 본 연구에서는 반응변수가 재방문 여부이기 때문에 특정 범주 j(본 연구에서 '재방문을 할 것이다.' 라고 답변한 집단이라면)에서 속할 확률을 $p(Y=j)$ 라고 하면,

$$p(Y=j) = \frac{e^{\sum \beta_{jk}x_k}}{1 + \sum_{j=1}^{J-1} e^{\sum \beta_{jk}x_k}} \quad (1)$$

라고 표시된다. 또한 기준범주(본 연구에서 '재방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한 집단이라면)이라면 다음 식과 같다.

$$p(Y=J) = \frac{1}{1 + \sum_{j=1}^{J-1} e^{\sum \beta_{jk}x_k}} \quad (2)$$

따라서 J집단에 비해 j집단에 포함될 확률은 (1), (2)의 식에서 두 식의 분모가 같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다음 식과 같다.

$$\frac{p(Y=j)}{p(Y=J)} = e^{\sum \beta_{jk}x_k} \quad (3)$$

다시 (3)식에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다음 식으로 바꿀 수 있다.

$$\log\left(\frac{p(Y=j)}{p(Y=J)}\right) = \sum \beta_{jk}x_k \quad (4)$$

(4)식에서 β 값을 계수로 산출하게 되는데 이는 종속변수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범주이므로 두 개의 β 가 생기게 된다. 첫 번째 β 는 '재방문할 것이다./'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β 는 '잘 모르겠다./'하지 않을 것이다.' 값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또한 β 값을 산출하게 되면 반응변수가 각 범주에 속할 확률(p)을 산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연구에서는 설문지 상에서 재방문 설문항목에서 ‘재방문하지 않겠다’는 집단도 중요하지만 ‘재방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집단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는 축제방문객이 단순하게 재방문을 확실하게 답변하는데 주저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빈도분석에서 나온 바와 같이 재방문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변한 응답율이 30%나 넘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첫 번째 방문 후 재방문하는데 있어서 주저하는 집단이 다시 재방문을 유도하기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위해 다항로짓모형으로 분석⁴⁾하고자 하며 그 결과는 다음 절차와 같다.

(2) 회귀모형의 우도비 산출 및 적합성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우선 설문지에서 제시된 항목 중 방어축제의 인지 정도(1개 변

수), 만족 요인(앞서 요인분석에서 산출된 5개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거주지, 연령, 소득, 학력 등 5개 변수)가 본 모형에서 고려하였다.

다항로짓모형에서는 발생 사건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 우도(likelihood)가 높을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음 표와 같이 -2LL (Log Likelihood) 값이 첫 번째 상수만 있을 때 수치인 466.637보다 유의한 변수가 단계별로 삽입되면서 최종적으로 368.341로 되어 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고⁵⁾ 모형 내에서 ‘축제사전인지 여부’, ‘학력’, ‘연령’, ‘축제 프로그램’, ‘축제장 편의성’ 변수들이 모형 내에 유의한 변수로 결정되었다. 여기 변수에서 Chi-Square 수치가 높은 ‘축제 프로그램’ 변수가 모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류표의 분류행렬을 살펴보면, 방어축제의 재방문 여부에 대한 관측 값(Observed)과 예측 값

표 5. 모형 내 변수 삽입의 단계별 결과 요약

Model	Effect(s)	Model Fitting Criteria			Effect Selection Tests		
		AIC	BIC	-2 Log Likelihood	Chi-Square(a)	df	Sig.
0	Intercept	470.637	477.531	466.637	.		
1	축제 프로그램	426.091	439.878	418.091	48.5462.000	2	.000
2	학력	404.414	425.095	392.414	25.6772.000	2	.000
3	축제장 편의시설	397.861	425.435	381.861	10.5532.005	2	.005
4	축제사전인지	395.305	429.772	375.305	6.5562.038	2	.038
5	연령	392.341	433.702	368.341	6.9642.031	2	.031

Stepwise Method: Forward Entry

a The chi-square for entry is based on the likelihood ratio test.

표 6. 모형 적합도 정보

Model	Model Fitting Criteria			Likelihood Ratio Tests		
	AIC	BIC	-2 Log Likelihood	Chi-Square	df	Sig.
Intercept Only	470.637	477.531	466.637			
Final	392.341	433.702	368.341	98.296	10	.000

표 7. 모형 분류표

Observed	Predicted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Percent Correct
그렇다	93	20	5	78.8%
모르겠다	35	33	7	44.0%
그렇지 않다	10	22	7	17.9%
Overall Percentage	59.5%	32.3%	8.2%	57.3%

표 8. 최종 로짓 모형 결과표

최종 변수		B	S.E.	Wald	df	Sig.	Exp(B)
재방문 하겠다는 집단	상수	4.078	1.258	10.501	1	0.001	-
	축제사전인지(a)	0.456	0.175	6.804	1	0.009	1.579
	연령(b)	-0.439	0.234	3.515	1	0.061	0.644
	학력(c)	-1.541	0.417	13.657	1	0.000	0.214
	축제 프로그램(d)	1.659	0.280	34.876	1	0.000	5.255
	축제장 편의성(e)	0.796	0.242	10.756	1	0.001	2.218
재방문에 대해 모르겠다는 집단	상수	1.774	1.193	2.213	1	0.136	-
	축제사전인지(a)	0.234	0.169	1.910	1	0.167	1.263
	연령(b)	-0.578	0.226	6.541	1	0.011	0.561
	학력(c)	0.132	0.389	0.115	1	0.734	1.141
	축제 프로그램(d)	0.448	0.239	3.505	1	0.061	1.567
	축제장 편의성(e)	0.490	0.231	4.516	1	0.034	1.634

(기준범주: '재방문하지 않음'에 대한 집단)

(Predicted)이 나타나있다. 표에서 보면 '재방문하겠다'라고 예측된 확률이 78.8%며, '모르겠다'라고 옳게 분류한 확률은 44.11%, 그리고 전체적으로 옳게 분류한 확률은 57.3%로 나타났다. 여기서 예측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탐색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회귀계수 및 회귀식 해석

본 연구에서는 초기에 독립변수로 고려하여 투입했던 여러 변수들 중 다음 표에서와 같이 기준 범주('재방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집단)를 비교하여 '그렇다',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집단과의 결과치이다.

위의 표를 근거로 '재방문하지 않음' 집단을 기준 범주로 했을 때의 로짓모형의 회귀식을 '재방문할 집단'과 '재방문에 모르겠다는 집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선 식(8)은 '재방문하겠음'/'재방문하지 않겠음'의 계수를 나타내는 회귀식이다. 이 회귀식에서 최종 산출된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값이 Wald 통계량이므로 이 수치를 본다면 '축제 프로그램'(d)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방어축제를 운영하는 담당자는 어떻게 축제의 내용 및 프로그램 등이 흥미가 있고 독창적이며 다양한 체험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또한 표에서 Exp(B) 수치인 5.255의 의미는 이 독립변수(축제 프로그램)의 변수 값이 1단위 증가하면, '재방문하겠다'는 확률이 '재방문하지 않겠다'는 확률보다 5.255배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의한 다른 변수보다 우월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유의 변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p(B) 수치 기준을 통해 다음으로 유의한 변수인 '축제장 편의성'이다. 이는 설문항목에서 제시한 대로 행사장의 주차공간, 화장실, 휴식공간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표에서 Exp(B) 수치인 2.218의 의미는 이 독립변수(축제 프로그램)의 변수 값이 1단위 증가하면, '재방문하겠다'는 확률이 '재방문하지 않겠다'는 확률보다 2.218배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재방문할지 모르겠음'/'재방문하지 않겠음'을 나타내는 표에서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있어 '재방

$$Y = 4.078 + 0.456*a + (-)0.439*b + (-)1.541*c + 1.659*d + 0.796*e \text{ ————— (5)}$$

$$Y = 1.774 + 0.234*a + (-)0.578*b + 0.132*c + 0.448*d + 0.490*e \text{ ————— (6)}$$

표 9. 최종 로짓 모형 결과표

최종 변수		B	S.E.	Wald	df	Sig.	Exp(B)
재방문 하겠다는 집단	상수	2.304	0.965	5.699	1.000	0.017	
	축제사전인지(a)	0.223	0.141	2.500	1.000	0.114	1.250
	연령(b)	0.139	0.184	0.573	1.000	0.449	1.150
	학력(c)	-1.674	0.344	23.648	1.000	0.000	0.188
	축제 프로그램(d)	1.210	0.221	29.945	1.000	0.000	3.354
	축제장 편의성(e)	0.306	0.184	2.758	1.000	0.097	1.358
재방문을 하지 않겠다는 집단	상수	-1.774	1.193	2.213	1.000	0.137	
	축제사전인지(a)	-0.234	0.169	1.910	1.000	0.167	0.792
	연령(b)	0.579	0.226	6.541	1.000	0.011	1.784
	학력(c)	-0.132	0.390	0.115	1.000	0.734	0.876
	축제 프로그램(d)	-0.449	0.240	3.505	1.000	0.061	0.638
	축제장 편의성(e)	-0.491	0.231	4.516	1.000	0.034	0.612

(기준범주: '재방문에 대해 모르겠다'는 집단)

문을 하지 않을' 집단이 '재방문을 할지도 모른다'로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의한 변수인 '축제사전인지' 항목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전에 많은 홍보가 있을수록 재방문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에서는 연령이 부(-)의 계수이므로 연령이 낮을수록 재방문을 할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기준 범주를 '재방문을 할지 모르겠다(보통 수준)'라고 응답한 집단을 두고 나머지 집단('재방문을 하겠다', '재방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한 집단)과의 결과치이다.

위의 표를 근거로 '재방문에 대해 모르겠다' 집단을 기준 범주로 했을 때의 로짓모형의 회귀식을 '재방문할 집단'과 '재방문에 모르겠다는 집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선 식(10)은 '재방문하겠음'/'재방문에 대해 모르겠음'의 계수를 나타내는 회귀식이다. 이 회귀식에서 Wald 통계 수치를 본다면 '축제 프로그램'(d)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표에서 Exp(B) 수치인 3.354이므로 이 독립변수(축제 프로그램)의 변수 값이 1단위 증가하

면, '재방문하겠다'는 확률이 '재방문에 대해 모르겠다'는 확률보다 3.354배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빈도분석에 나온 대로 30%를 상회하는 '재방문이 모호한 집단'을 다시 재방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표에서와 같이 다른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거나 의미가 크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활성화된 방어축제에 대해 계속적인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속변수를 향후 방문의도로 한 다항 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로짓모형에서 추가적으로 설문지 상에서 재방문 설문항목에서 '재방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집단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이유는 축제방문객이 단순하게 재방문을 확실하게 답변하는데 주저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빈도분석에서 나온 바와 같이 재방문에 대해 '보통'이라고

$$Y = 2.304 + 0.223*a + 0.139*b + (-)1.674*c + 1.210*d + 0.306*e \text{ ————— (7)}$$

$$Y = -1.774 + (-)0.234*a + 0.578*b + (-)0.132*c + (-)0.448*d + (-)0.490*e \text{ ————— (8)}$$

답변한 응답율이 30%나 넘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분석 결과, '재방문하겠음'/'재방문하지 않겠음'의 계수를 나타내는 회귀식에서 '축제 프로그램' 변수 값이 1단위 증가하면, '재방문하겠다'는 확률이 '재방문하지 않겠다'는 확률보다 5.255배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유의한 다른 변수보다 우월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유의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유의한 변수인 '축제장 편의성' 및 '축제사전인지' 변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축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방문하겠음'/'재방문에 대해 모르겠음'의 계수를 나타내는 회귀식에서 '축제 프로그램' 변수는 '재방문하겠다'는 확률이 '재방문에 대해 모르겠다'는 확률보다 3.354배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체 표본의 30%를 상회하는 '재방문이 모호한 집단'을 다시 재방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註

- 1) 유사한 방법으로는 판별분석 및 군집분석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여러 통계적 가정을 고려하여 본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음.
- 2) 또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이라고도 함
- 3) 이는 다중정규성 가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 4)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Yes)', '없다(No)' 그리고 '보통이거나 잘 모르겠다(Maybe)'의 3개의 답변으로 되어있음.
- 5) 로짓모형의 전반적인 유의도는 모형의 통계적 적합성 수치와 '-2 log likelihood'의 값에 의하여 결정됨. 즉, 최종 단계에서 상수만 포함된 경우의 -2LL값과 현 모형의 -2LL값의 차이 값의 통계적 유의확률 값이 0.05보다 낮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됨. 여기서 모형 Chi-Square는 "상수를 제외한 현 모형의 모든 항들의 계수는 0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하게 되는 것이며 Chi-Square 값이 클수록 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높게 됨.

文獻

권정택, 2001, 관광이벤트의 방문동기와 사후 이미지가 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동우, 1998, 관광지 심리적 체험과 만족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승익·윤동구·정승훈·박은아, 2000, 축제 방문 동기 세분화에 따른 지각된 성과와 만족 분석, 관광학연구, 23(2), 246-266.

김성섭·한학진·이혜린, 2005, 로짓모형을 이용한 축제참가자 비용지출 분석, 호텔경영학회, 14(4), 257-271.

김익권, 2007,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 경남고성 공룡 세계엑스포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철, 2004, Determinants of NIMBY Attitudes of Local Residents in Jeju, Korea- An application of Two-choice Model-, 자원·환경경제연구, 13(4), 685-715.

박미정, 2001, 지역축제 방문객의 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13(1), 269-285.

박인환·장갑수·서동조, 2006, 다중 로지스틱 모형에 의한 농경지 휴경잠재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15(1), 53-65.

배기철, 2000, 한국 문화관광상품과 여행사에 대한 만족과 재이용의도에서 이월효과와 교차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희석·이동기·김영희, 2002, 지역축제에 대한 방문객의 인지: 익산세계이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14(2), 237-255.

이덕재, 2006, 조건부 로짓함수를 이용한 경관선호 모델: 지리산 국립공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국임학회지, 95(6), 768-777.

이선우, 2001, 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8, 113-135.

이장주, 1997, 지역축제의 이미지측정척도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정실·양일용, 2003, 지역축제방문동기 세분화 및 만족의 차이, 관광·레저연구, 14(3), 143-156.

이태희·김홍렬·윤설민·장윤정, 2007,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관광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축제와 관광지 매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19(2), 73-90.

이학식·임지훈, 2005, SPSS 12.0 매뉴얼, 법문사.

이훈·김정은, 2000, 관광문화축제 행사프로그램 내용분석: 1999년 상반기 축제를 중심으로, 관광개

- 발논총, 12, 213-232.
- 조배행 · 박종진, 2007, 지역축제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 차이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1), 68-81.
- 최용복 · 부창산, 2007, 지역축제의 만족속성이 방문객 만족도와 재방문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법과정책, 13(2), 269-288.
- Gujarati, Damodar, N., 1995, *Basic Econometrics*, McGraw-Hill, 165-173.
- Hair, J.F., 1998, Anderson, R.E., Tatham, R.L., and Black, W.C.,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Liao, T. F., 1994, *Interpreting Probability Models: Logit, Probit and other Generalized Linear Models*, Sage Publications.
- Mohr, K., Backman, K.F., Gahan, L.W., & Backman, S.J., 1993, An Investigation of Festival Motivations and Event Satisfaction by Visitor Type,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1(1), 89-97.
- 교신 : 김민철(제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Correspondence: Kim Min-Cheol(Cheju National University)
(mck1292@cheju.ac.kr)
- (접수 : 2007. 11. 27, 채택 : 2007. 12. 13)